

【 국내금융 뉴스 】

10월부터 종신·정기보험료 인하 vs 질병·연금보험료 인상

- 금감원은 생명보험회사들이 금년 10월부터 연말까지 보험개발원의 새로운 참조위험률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금번 참조위험률은 '06년 이후 3년 만에 적용하는 것으로 과거와 같이 일괄시행 시, 절판마케팅에 따른 가입자의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함.
 - 이에 신규로 개발하는 보험상품은 10월부터 적용하되, 기존상품에 대해서는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순으로 변경된 참조위험률을 금년 말까지 회사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임.

- 금번 참조위험률의 변경에 따라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인 종신·정기보험의 보험료는 5.4%~10.9% 하락하고, 입원·수술 등 생존을 보장하는 상품인 질병보험과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6.4%~11.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예컨대 40세 남성, 보험가입액 1000만원, 종신 또는 80세 만기, 보험료 20년간 납부를 기준으로 할 때 종신보험은 3.0~7.4%, 정기보험은 4.3~15.2%, 생사혼합보험은 2.0~5.6%가 보험상품과 보험회사에 따라 달라짐.
 - 반면 연금보험은 3.2~8.0%, 질병보험은 10.2~27.7%가 인상될 예정임.

- '09년 10월부터 기존 판매상품이 보험회사별로 단계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며, 생·손보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 이처럼 보험요율에 최근 통계를 반영함으로써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 하락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회사별로 보장내용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어 재무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임.

(보험상품의 새로운 참조위험률 적용시기 안내,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생명보험팀, 9/11)